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동향 분석

이선미* · 김영순**

요약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이들에 대한 추가적 연구를 위한 제언과 함께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KCI에 등록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72편을 추출해 연구 동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18년 이후 논문 수가 크게 증가했고 연구 대상은 아시아권, 학위과정, 서울 및 수도권 대학, 인문·사회계열 전공자가 주요 대상으로 나타났다. 연구 기간은 3개월 미만, 면담시간은 60분 미만, 연구 참여자 수 6-10명 범위 논문이 많았으며 질적 연구 방법은 사례연구가 많았다. 연구주제로는 경험, 적응, 문화와 함께 진로, 불법 노동, 학문 공동체와의 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동향 분석을 처음 시도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질적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방향성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외국인 유학생, 한국생활 경험, 질적연구, 언어 네트워크, 연구 동향 분석

1. 서론

2020년 9월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153,695명에 이르고 있다. 2019년에 비하면 6,470명이 감소한 수치이지만 2000년에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3,980명 정도였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20년 만에 약 40배의 수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¹ 이렇게 국내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게 된 이유는 2000년대 초 아시

* 제1저자, 인하대, 한국어교육학, 박사수료, sos0106@nate.com

** 교신저자, 인하대, 다문화교육학, 교수, kimysoon@inha.ac.kr

아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한류가 K-pop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미국과 유럽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세계적으로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 또한 높아진 이유를 들 수 있다. 이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저출산으로 인해 국내 생산 가능인구와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정부와 각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도 크다고 할 수 있다(이은화 2015).

정부는 2015년에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발표하여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강화’, ‘우수 지방대 학생 유지’, ‘유학생 유치 지원 기반 구축’ 정책을 중점 추진과제로 내놓았다(교육부 2015). 2016년에는 이전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로 확대 변경하여 인증을 통과한 대학마다 유학생 비자 발급 심사 기준 완화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 재정 지원 사업과 정부 초청 장학생 사업 신청을 우대하는 등 각 대학마다 유학생 유치를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부 2016). 이를 기점으로 국내 유학생 수는 양적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정부는 202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유치 20만 명을 목표로 모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런 양적인 확장 이면에 여러 다양한 문제점들 또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유학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유학을 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입학하는 유학생들로 인해 학업 중도 탈락 비율은 매해 늘어나고 있으며 미흡한 언어 준비로 인한 학업의 어려움(민진영 2014; ZHAI LIXIA 외 2018)과 대학생활 및 문화 적응(권양이 2008; 하정희 2008; 김영경 2009)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유학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강운선(2016)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국내 대학생들의 인식도 부정적인 것²으로 나타나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 생활 적응과 학업의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김희정 외(2018)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잠시 한국에 머물다가 본국으로

1 <https://kess.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대학 통계)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2020년 4월 1일 기준).

2 강운선(2016)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 대학생들의 인식조사 결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대학생들의 ‘다문화 역량’ 향상에 긍정적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무려 59.4%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며 학업적으로도 부담을 갖고 챙겨줘야 하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아갈 대상이 아닌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할 가능성이 많은 예비 다문화 인구로 바라봐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사회에서 예비 다문화 인구이며 또한 주류가 아닌 소수자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과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적극적 이해를 도모하고 앞으로의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함께 공존해 갈 대상으로서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과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연구가 더욱 체계화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연구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생활 경험에 관한 연구 현황을 먼저 살피고 연구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연구 동향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한편 질적연구는 선정된 연구 대상이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들의 관점을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연구방법이다(김향란 외 2017). 또한 양적연구로는 파악할 수 없는 연구 대상들의 실제적인 경험과 현상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밝혀내고 그들이 겪은 경험들을 분석하여 그들을 위한 실제적인 문제 해결이나 정책 및 이론 개발 등도 가능하게 한다(김갑선 2017). 그렇기에 외국인 유학생들의 상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질적연구들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이루어진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경험과 관련된 질적연구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보고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의 성과와 미진한 점들을 분석하여 향후 이들에 대한 추가 연구 방향을 제언하는 데에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한국생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통해 예비 다문화 인구로서 이들을 위한 앞으로의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이 되길 기대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는 연도별, 시기별, 대상별, 방법별로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둘째,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의 주제와 내용은 무엇인가?

2. 이론적 배경

1)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과 현황

외국인 유학생³이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4 제1항에 의거해 ‘우리나라에서 유학 또는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 대학과 대학원에 입학하여 정규 및 연구과정에 있는 학생’을 일컫는다(이혜영·박수정 2018).

이러한 외국 유학생들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국내 학령 인구 감소와 해외 대학으로의 유학 수요 증가로 인한 국내 대학 입학 정원 부족, 유학수지 적자와 그로 인한 지방대학들의 재정적 어려움 등을 해결하고자 2001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 방안’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발표하면서부터이다. 정부는 2004년 ‘Study Korea Project 발전 방향’(교육부 2004)을 통해 ‘한국 유학홍보’와 ‘외국인 유학생 초청 사업 확대’ 그리고 ‘해외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만 명이라는 목표가 2007년에 조기 달성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2008년 ‘Study Korea Project 추진계획’(교육부 2008)을 통해 2012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자 하였고 2012년 10월에는 ‘Study Korea 2020 Project 추진계획’(교육부 2012)을 통해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양적 확대 목표를 20만명으로 상향 조정하였다(이은화 2015).

그러나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도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 체류율⁴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학업 중도탈락 비율의 증가와 대학생들 및 학업·문화 적응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질적 관리와 우수한 인재 유치에도 주안

3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을 한국 국적 소지자가 아닌 순수 외국인과 외국 국적 재외동포로 국내 대학과 대학원에 입학하여 수학을 하고 있는 학생으로 정의하며 교환학생과 언어연수생도 외국인 유학생 범위에 포함하였다.

4 김현미(2020)에 따르면 2019년 9월 말 법무부 발표 기준,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 체류자 비율 수치가 10년간 누적 규모 전국 대학 11,177명으로 전년 대비 6,601명보다 69.3%나 늘어났다.

점을 두게 되었다(김성은·이교일 2019).

그리하여 정부는 2011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역량 인증제’를 실시하고 2016년부터는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로 개편하여 각 대학마다 불법 체류율 2-4% 미만, 중도탈락률 6% 미만을 필수 지표로, 등록금 부담률 80% 이상, 의료보험 가입률 90% 이상, 신입생 기숙사 제공률 25% 이상, 언어능력 30% 이상을 핵심 여건지표로 하여 인증기준을 통과한 대학에 한하여 시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국제화 관련 정책·사업을 우선적으로 부여받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9). 이처럼 국내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외국인 유치 확대’라는 양적 확장과 ‘우수 인재 유치’ 및 ‘외국인 유학생 관리’를 통한 질적 수준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림 1〉은 지난 10년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현황으로 2015년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20년에 다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표 1〉에 나타난 유학 과정별 연도 현황을 보면 비학위과정 유학생은 2020년에 접어들면서 줄어든 반면 학위과정(전문 학사·학사, 석사, 박사) 유학생은 오히려 전 연도에 비해 수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으로도 학위과정을 할 외국인 유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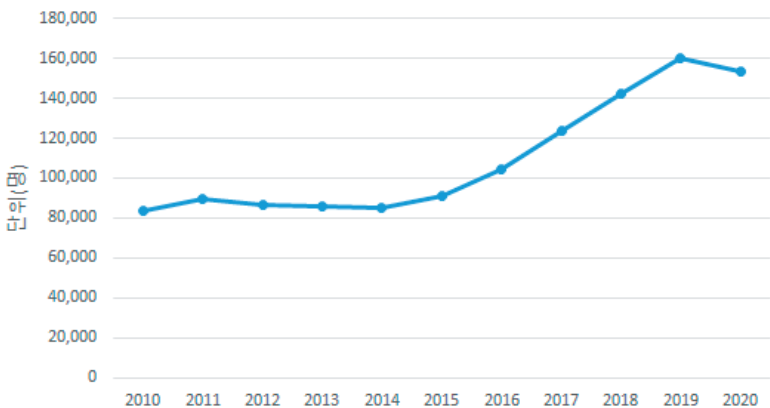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현황 추이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2020,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표 1.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유학 과정별 현황 (2010-2020년)

구분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전문학사·학사	석사	박사	여학 연수생	기타 연수생
2010	43,709	12,480	3,811	17,064	6,778
2011	44,641	14,516	4,496	18,424	7,460
2012	40,551	15,399	4,639	16,639	9,650
2013	35,503	16,115	5,097	17,498	11,710
2014	32,101	15,826	5,709	18,543	12,712
2015	32,972	16,441	6,326	22,178	13,415
2016	38,944	17,282	6,878	26,976	14,182
2017	45,966	18,753	7,313	35,734	16,092
2018	56,097	21,429	8,510	41,661	14,508
2019	65,828	23,605	10,782	44,756	15,194
2020	74,851	24,996	13,156	32,315	8,377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2020,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학생들이 겪는 문제들도 더 다양화되고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그렇기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생활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여러 상황과 이들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질적연구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2) 질적연구와 탐색적 연구 방법

질적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삶과 경험에 관한 이해 방식을 연구자가 수집하여 연구자의 가정된 세계관을 통해 연구자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학문 활동을 의미한다(김진희 외 2015). 이러한 질적연구의 목적은 참여자들이 사회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하는지 집중하기에 참여자들의 행동 이면에 내포되어 있는 느낌, 관념, 동기, 신념 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유기웅 외 2018).

그렇기에 질적연구는 양적 연구와 같이 절대적 법칙과 이론이 아닌 사회 현상에서 탐색하기 쉽지 않은 개별 연구 대상들이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경험 또

는 현상에 있어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어 기존에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던 것들에 대해 비판적 시각과 함께 새로운 탐구적 태도를 갖도록 한다(김영천 2016). 양적 연구가 ‘수’라는 객관적 단위를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현상을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면 질적 연구는 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복잡한 매개 요소들과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또 이런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상호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렇기에 질적연구는 이러한 현상 즉 어떤 현상이 왜 일어나고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다양한 상황적 요인들을 통해 서로 연결 및 개입이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며 현상을 통해 수집된 여러 다양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질적연구의 주제가 되는 현상들을 깊이 있게 설명하며 독자들로 하여금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는다(유기웅 외 2018).

질적연구의 유형으로는 대표적으로 Creswell(2013)이 제시한 ‘근거 이론’, ‘현상학’, ‘내러티브’, ‘사례연구’, ‘문화 기술지’ 등이 있다. 그러나 유기웅 외(2018)에서는 Creswell이 분류한 5가지 유형 외에도 ‘실행 연구’와 ‘생애사 연구’들이 질적연구물들에서 종종 발견이 되었음을 언급하며 더 나아가서는 질적연구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질적연구 유형에 포함하기 어려운 연구들도 많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Merriam(1998)은 이것을 ‘기본적 질적연구’라고 설명하면서 어떤 현상 안에 공통적으로 내재된 중심 주제와 범주를 귀납적으로 추출하는 데에 주력하는 연구임을 말하고 있다(유기웅 외 2018). 그렇기에 질적 연구의 유형은 수십 가지로 분류가 된다.⁵ 이러한 질적연구 유형의 특징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 <표 2>와 같이 질적연구 방법의 유형을 ‘근거 이론’, ‘현상학’, ‘내러티브’, ‘사례연구’, ‘문화 기술지’, ‘생애사 연구’, ‘합의적 질적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기본적 질적연구’로 한정하였다.

한편 탐색적 연구는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하거나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하려고 수행하는 연구로 연구 주제가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이나 연구자가 보다 중요한 연구의 실행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할 때 상용되는 연구

5 John W. Creswell 저, 조홍식(2005)은 제 1판 역자 서문에서 위와 같은 언급을 하고 있다.

표 2. 질적연구 방법 유형

유형	개념
근거 이론	현상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론을 개발
현상학	현상에 대한 경험을 본질적으로 이해
내러티브	이야기를 통해 개인의 인생을 깊이 탐색하고 이해
사례연구	단일 또는 복합 사례에 대한 상세한 기술과 심층 분석
문화 기술지	특정 문화 공유 집단에 대한 이해와 기술 해석
생애사 연구	개인의 역사적인 삶을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함께 이야기로 기술
합의적 질적연구(CQR)	연구 참여자, 연구자, 전문가 팀으로 함께 논의를 거쳐 연구결과를 도출
기본적 질적연구	어떤 현상 안에 공통적으로 내재된 중심 주제와 범주를 귀납적으로 추출하는 데에 주력하는 연구

방법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질적연구물에 대한 탐색적 연구는 질적연구에 나타난 여러 연구 대상들의 경험과 현상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여 추가적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탐색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⁶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물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고 미진한 연구주제들을 발견하여 앞으로 이들을 위한 새로운 연구들에 대한 활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3) 외국인 유학생 연구동향

질적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여러 경험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겪는 문제와 상황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기존의 양적연구로는 이루어지지 못했던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 주제에 대해서도 탐색적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동향 분석은 단 2편(이혜영·박수정 2018; 신동훈·김세현 2020)에 그치고 있고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동향 분석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6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범위를 대학생활과 관련된 교육차원뿐 아니라 이들을 예비 다문화 인구로 바라보고 일상생활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범주들도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이혜영·박수정(2018)는 2007-2016년까지 약 10년간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연구된 국내 학술지 105편을 가지고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연구 대상인 논문의 시기가 2007-2016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연구 분석 과정 또한 연구자의 직관에 의존한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신동훈·김세현(2020)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학술논문의 국문 초록 668편을 가지고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시기별 연구 주제 변화를 탐색하여 연구자의 직관을 배제하고 보다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겪는 구체적인 경험과 현상들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의 차이점을 갖는다.

3.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논문 선정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논문을 수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검색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의 논문이 객관적으로 질적인 수준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학술지의 연구논문으로 제한을 두기 위해 KCI 등재지에 게재 된 연구 논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는 한국 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 서비스(이하 'RISS')에 '외국인 유학생'을 키워드로 넣고 결과 내 검색을 클릭한 후 이어 '질적 연구'를 키워드로 넣어 국내 학술논문 108편을 추출하였다. 등재 정보란을 통해 KCI 논문만을 선택하여 총 83편의 논문을 수집하였다. 논문 제목에 '외국인 유학생'이란 단어가 들어가고 이어 '질적연구', '질적 탐색', '내러티브', '사례연구', '생애사', '현상학', '근거 이론', '경험' 등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 논문 제목들을 연구 대상 논문으로 선별하였다. 또한 중복되는 논문이나 질적연구와 관련이 없는 논문들은 수집 대상에서 제외하여 29편의 논

문을 추출하였다. 2차 검색 또한 RISS에서 ‘유학생’을 키워드로 넣고 이어 ‘외국인 유학생’을 키워드로 하여 국내 학술논문을 검색한 후 KCI 등재 이상 논문 총 775편의 논문 목록을 수집하였다. 검색한 775편의 논문 중 1차로 수집된 29편, 질적연구 방법과 관련이 없는 논문, 그리고 중복 논문들을 제하고 43편을 추출하였다. 또한 질적연구 논문이기는 하나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논문들을 제외하고 최종 72편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0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연구된 총 72편의 논문으로부터 제목, 저자, 학술 지명, 발행연도, 키워드, 초록 등의 기본 정보들을 추출하여 엑셀로 다운로드를 하였다.

2) 분석 준거

본 연구의 분석 기준은 질적연구에 관한 동향 분석 연구가 상담학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온 만큼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분석 기준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판단되어 상담학 분야의 질적연구 동향 분석 준거(김봉완 외 2012; 박승민 2012; 권경인·양정인 2013; 박경애·백재은 2017; 이현진·김영찬 2018)를 참조⁷⁾하였다(표 3 참조). 이를 바탕으로 공통적으로 기술된 기초사항,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주제를 분석 영역으로 정하였고 세부 항목은 외국인 유학생 대상에 맞게 다음 <표 4>와 같이 수정·보완하였다.

표 4. 분석 준거

분석 영역	세부 항목
기초사항	1) 연도별 2) 시기별: 5년 단위
연구 대상	1) 국적별 2) 학업과정별 3) 지역별 4) 전공계열별

7 표 3, 각 연구자마다 분석 기준 제시 순서가 달랐으나 본 연구에선 공통적 순서로 기술하였다.

연구자	분석 기준
김봉완(2012)	기초사항,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주제
박승민(2012)	기초사항,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목적, 자료수집
권경인·양정인(2013)	기초사항,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주제, 자료수집, 심층면담시간, 타당도
박경애·백재은(2017)	기초사항,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주제
이현진 외(2018)	기초사항,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주제, 수행 과정 및 타당성 검증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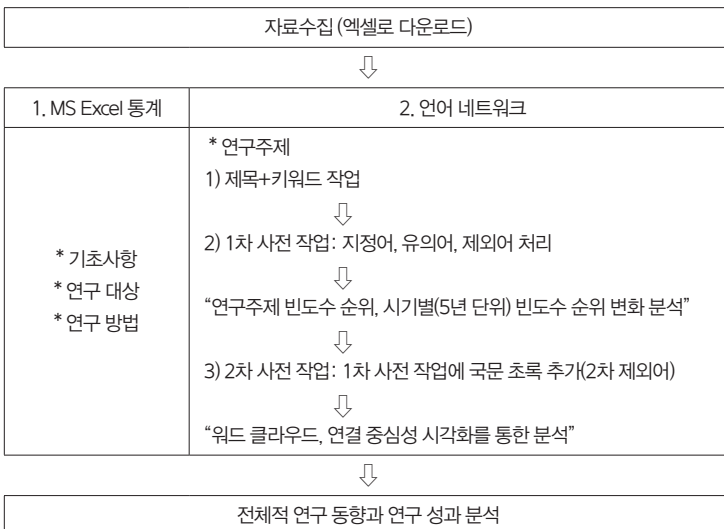
연구 방법	1) 연구 기간 2) 면담 시간 3) 연구 참여자 수 4) 질적연구 방법: 근거 이론, 현상학, 내러티브, 사례연구, 문화 기술지, 합의적 질적연구(CQR), 생애사 연구, 기본적 질적연구
연구주제	1) 연구주제 빈도수 순위(전체, 시기별) 2) 시기별 연구 주제 변화 3) 워드 클라우드 4) 연결 중심성 시각화

3) 분석 절차

본 연구는 2007-2020년 8월까지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경험을 대상으로 질적연구 방법을 적용한 국내 학술논문 72편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크게 2가지 분석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분석 절차는 <표 5>와 같다.

첫째, 분석 대상이 되는 72편 논문의 제목, 발행 연도, 저자, 학술 지명, 키워드, 초록 등을 연도별로 재구성하였다. 그 후 재구성된 논문 정보(논문의 제목, 발행

표 5. 분석 절차



연도, 저자, 학술 지명, 키워드, 초록)와 분석 대상 논문에 직접 언급된 연구 방법 기술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기초사항(연도별, 5년 단위 시기별), 연구 대상(국적별, 학업과정별, 지역별, 전공계열별, 연구 참여자 수), 연구 방법(연구 기간, 면담 시간, 연구 방법: 근거 이론, 현상학, 내러티브, 사례연구, 문화 기술지, 생애사 연구, 합의적 질적연구, 기본적 질적 연구) 등을 MS Excel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둘째, 연구주제와 관련해서는 NetMiner 4.3.3⁸을 활용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언어 네트워크는 내용분석 방법에 있어 기존의 빈도 분석만이 아닌 보다 다양한 관계 분석 지표들을 통해 내용분석의 수준을 높이고 텍스트 내의 단어들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중심적 단어와 주변 단어들의 연관적 결과를 시각화하고 이를 해석함으로써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을 최소화하고 보다 객관적인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이수상 2014; 이해준 외 2010).

우선 재구성한 논문 72편의 제목과 키워드만을 추출한 후 지정어, 유의어, 제외어 처리 과정을 통해 1차 사전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주제어를 정확히 추출하기 위한 작업으로 주제어 목록을 반복하여 살펴면서 통제, 교정, 제거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지정어 사전’에서는 띄어쓰기로 인한 개별 단어 인식을 막고 단어 본래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사례 분석, 사례연구, 질적 사례연구, 중국인, 유학 결정, 유학선택, 대학원생활, 대학생활, 유학 생활, 학교생활, 여가생활, 한국생활, 학업 생활, 유학 동기, 중도탈락, 여가활동, 멘토링 활동, 미술치료’ 등의 단어를 포함하였다. ‘유의어 사전’도 동일한 대상을 언급함에 있어 연구자별 용어 차이나 띄어쓰기로 인한 개별 단어들의 인식을 막기 위해 ‘중국인, 중국, 근거 이론, 근거 이론적, 구성주의 근거 이론, 대학 생활, 대학원 생활, 여가생활, 여가 활동, 사례 분석, 질적 사례연구, 멘토링, 멘토링 활동, 미술치료, 집단미술치료, 집단미술치료’ 등의 단어들을 포함하였다. ‘제외어 사전’에서는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일 수밖에 없는 ‘유학생, 연구, 유학, 대학, 외국인’ 등의 연구 대상 단어들과 ‘1음절 단어와 중심, 재한, 한국, 분석, 탐구, 국내, 탐색, 과정’ 등의 연구주제로

8 NetMiner 4.3.3 버전은 2001년 소셜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분석 회사인 (주)사이람(Cyram)에서 개발되었고 언어 네트워크 분석 기능이 들어 있다.

보기 어려운 단어들까지도 포함하였다. 이러한 처리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한 사전 작업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고 결과를 통해 연구 주제어에 대한 빈도수 순위와 시기별(5년 단위) 빈도수 변화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1차 사전 작업을 마친 분석 대상 논문의 제목과 키워드 자료에 국문 초록을 추가하여 2차 제외어 ‘학생, 접근, 방법, 질적, 출신, 대상, 학생, 사용, 제한, 목적, 결과, 활용, 자료, 출신, 대학, 재학, 수집, 참여, 심층, 면담’을 추가로 넣고 2차 사전 작업을 진행하였다. 국문 초록까지 분석의 범위를 확장시킨 것은 제목과 키워드에는 나타나지 않는 연구의 내용들 곧 연구목적, 결과와 시사점 등을 통해 중요 개념들과 단어들 사이의 관계까지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즉 제목, 키워드, 국문 초록의 단어 출현 빈도 분석을 통해 전체 워드 클라우드와 연결 중심성 시각화 작업을 하여 텍스트에 나타난 주요 내용들 사이의 관계와 강도를 한눈에 살피고 그 의미를 분석함을 통해 지금까지의 질적연구의 성과와 미진한 점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4. 연구 결과

1) 기초사항

(1) 연도별 논문 수 변화

연도별 논문 수는 김대현 외(2007)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매년 2편 정도씩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4년에 접어들면서 8편으로 증가하였고 2016년엔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8년부터는 다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2018년을 기점으로 논문 수가 증가한 이유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된 다양한 ‘경험’들이 질적연구의 연구주제들로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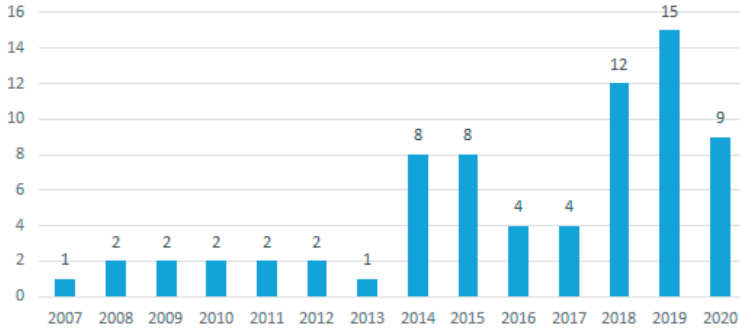


그림 2. 논문 수의 연도별 변화

(2) 시기별 논문 수 변화: 5년 단위

5년 단위 시기별 논문 수는 <그림 3>과 같다. 2010년 이후부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 2010년 이전을 기준으로 7편에 불과하던 질적연구 논문 수가 5년 후 3배, 10년 후 약 6배가 증가하였다.

연구가 꾸준히 증가한 이유로는 정부가 추진한 유학생 정책 결과(‘Study Korea Project(교육부 2008): 2012년까지 10만 명 목표’,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교육부 2015): 2023년까지 20만 명 목표’)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크게 증가⁹하면서 이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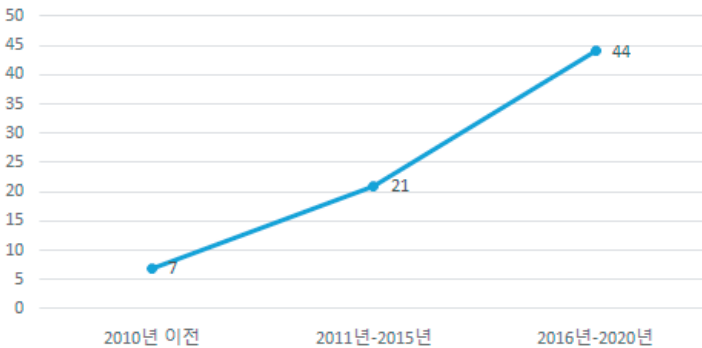


그림 3. 논문 수의 시기별 변화

9 2010(89,537명), 2015(91,332명), 2019(160,165명), 2020(153,695명): 교육통계서비스 연도 별 외국인 유학생 수(2020년).

2) 연구 대상

(1) 국적별

국적별 연구 대상은 특정 국적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다양한 출신 국가의 유학생들로 ‘혼합’되어 언급된 경우가 37편(51.3%)으로 가장 많았다. <그림 4-2>는 ‘혼합’ 논문 37편의 연구 대상을 다시 세부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동북아시아권 출신(중국, 일본, 몽골, 대만) 유학생이 전체의 32%였고 이어 동남아시아(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라오스 등) 31%, 중앙 아시아·러시아 12%, 유럽 7%, 서남아시아 6%, 북미 4%, 남미 3%, 아프리카 2%, 오세아니아 2%, 중동 1%의 비율을 보였다.

‘특정 국가’를 선정할 경우는 모두 33편으로 중국 16편, 우즈베키스탄 7편, 몽골, 베트남 각각 3편, 아프리카 2편, 사우디아라비아와 홍콩이 각각 1편씩의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정확한 국적을 밝히지 않고 ‘여러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 등으로만 명시된 논문도 2편(기타로 처리)이 있었다. 이렇듯 국적별 연구 대상을 종합해 볼 때 대체로 아시아권 유학생들로(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연구가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뿐 아니라 다양한 출신국 유학생들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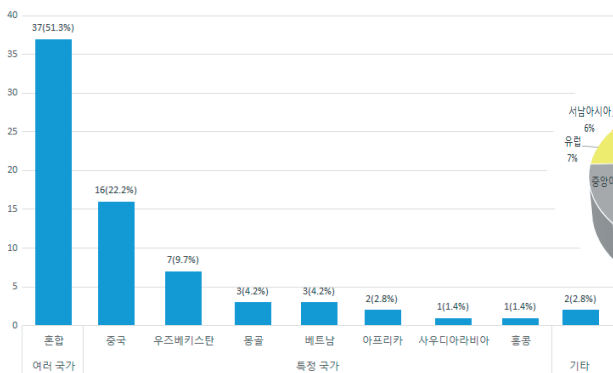


그림 4-1. 국적별 연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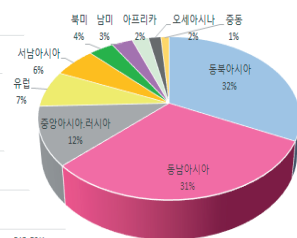


그림 4-2. 혼합(37편)

(2) 학업 과정별

학업 과정별 연구 대상은 ‘혼합’ 22편, 대학생 19편, 대학원생 18편, ‘언급 없음’ 이 15편으로 나타났다. 22편의 혼합 연구는 <그림 5-2>와 같이 대학생·대학원생 14편, 교환학생·대학생·대학원생 4편, 언학연수·대학생·대학원생 2편, 교환학생·대학생 1편, 어학연수·대학생 1편의 수치를 보였다. 한편 대학원생 18편의 논문 중 5편은 기혼자(2편), 공무원 신분(1편), 정부 초청 유학생(1편), 대학원 졸업생(1편) 등으로 좀 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들이었다.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학업과정별 연구는 학위과정 유학생에 주로 집중되어 있고 비학위 과정(어학연수, 교환학생)이나 특수한 상황에 놓인 학생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이들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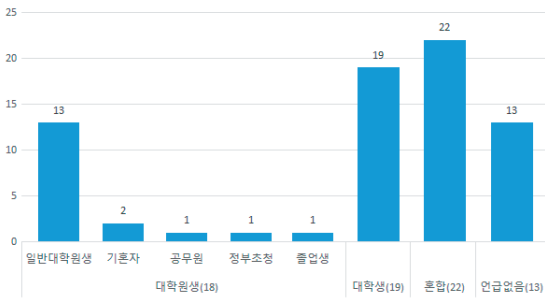


그림 5-1. 학업 과정별 연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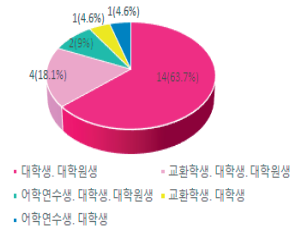


그림 5-2. 혼합(22편)

(3) 지역별

지역별 연구 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 대학 유학생이 36편으로 가장 높았고, 언급 없음 14편, 지방 대학 12편, 혼합 7편, 기타 3편으로 나타났다. 총 72편의 논문 중 50%의 비율이 서울 및 수도권 대학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에 대한 연구였다. 36편 중 서울 소재 대학이 19편, 인천 소재 대학 20편, 수도권 대학이 7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합 7편은 여러 지역에 있는 유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 논문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도 서울 및 수도권 유학생이 45% 가장 높게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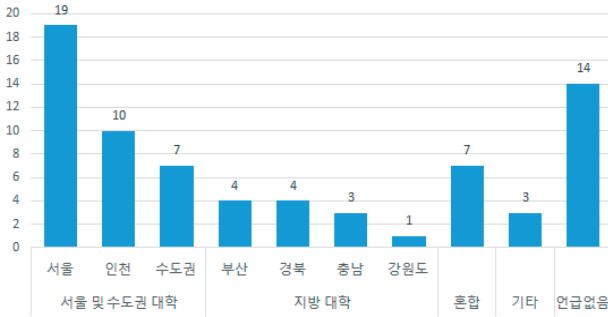


그림 6-1. 지역별 연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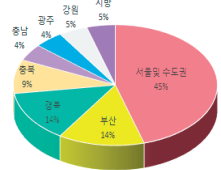


그림 6-2. 혼합(7편)

타났음을 알 수 있다(그림 6-2 참조).

이는 서울 및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지방대 유학생 유치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4) 전공 계열별

총 72편의 논문 중 32편은 전공계열에 대한 언급이 없고 나머지 40편은 여러 전공계열 유학생들이 함께 혼합되어 있었다. 그렇기에 전공계열에 대한 본 연구는 72편의 논문 연구 대상 수 698명의 전공을 각각 확인하여 전체적인 전공계열 경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전공계열별 분류는 ‘교육통계서비스 학과(전공) 분류표(2019 기준)’를 기준으로 하였고 분석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전체 698명의 연구 대상 중 인문·사회계열 267명, 자연·공학계열 69명, 예체능계열 26명, 교육계열 12명, 의학계열 1명 그리고 언급 없음이 32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기준 전공계열 외국인 유학생 수 현황(인문·사회계열 59,695명, 자연·공학계열 17,553명, 예체능계열 12,593명, 교육 2,131명, 의학 1,513명)과 유사한 그래프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총 72편의 논문 중 32편이 전공계열에 대한 언급이 없고 또한 나머지 40편은 여러 전공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세부 전공계열별로는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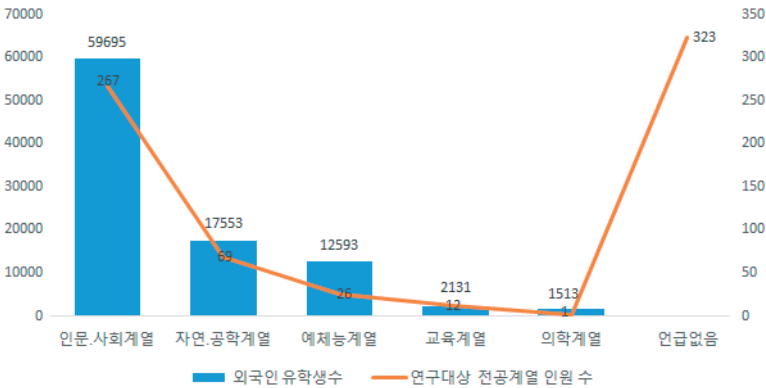


그림 7. 전공계열 별 연구대상

3) 연구 방법

(1) 연구 기간

질적 연구에서 연구 기간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연구의 결과와 해석을 도출해 내는 기간이 되기에 그 경향을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72편의 논문 연구 기간을 분석해 본 결과 4개월 이하인 논문이 전체 논문의 45.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1개월 이하 9.7%, 1-2개월 12.5%, 2.1-3개월 12.5%, 3.1-4개월 이하 11%). 1년 이상의 연구 기간을 거친 연구는 5.6%에 불과하였고 그 중 2년의 기간을 거친 연구로는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학 동기’를 연구한 이민경(2012)의 연구가 있었고 연구 기간을 언급하지 않거나 상담 횟수로 표현된 기타 논문도 29%였다(표 6 참조).

(2) 면담 시간

총 72편의 연구 중 면담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언급한 논문 수는 54편(75%)이었고 구체적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논문은 18편(25%)이었다. 면담 시간을 언급한 54편의 분석 결과 평균 60분 이내로 소요된 연구는 29편(40.3%)으로 가장 많았고 90분 이내 7편(9.7%), 150분 이내 12편(16.7%), 150분 이상인 경우가 6편(8.3%)으로 확인되었다(표 7 참조).

표 6. 질적연구 연구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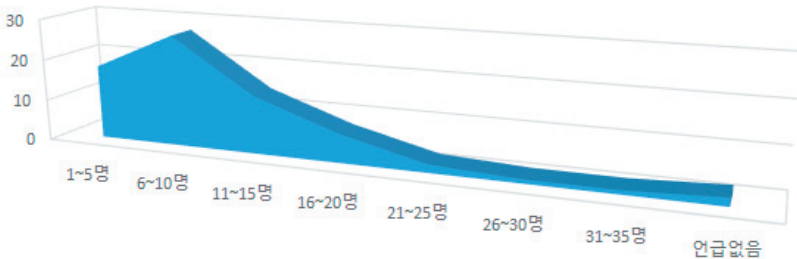
개월/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계
0.0-1.0			1	1	1			1	1	1		1		1	7(9.7%)
1.1-2.0		1			1			1	1	1	1	3			9(12.5%)
2.1-3.0						1		1	2	1		1	2	1	9(12.5%)
3.1-4.0								1	2			3	2		8(11%)
4.1-5.0													2		2(2.8%)
5.1-6.0		1												1	2(2.8%)
6.1-7.0													2		2(2.8%)
7.1-8.0								1					1		2(2.8%)
8.1-9.0															0(0%)
9.1-10.0								1			1				2(2.8%)
10.1-11.0														1	3(4.2%)
11.1-12.0										1					1(1.4%)
12.1-13.0															0(0%)
13.1-14.0				1											1(1.4%)
14.1-15.0															0(0%)
15.1-16.0													1		1(1.4%)
16.1-17.0											1				1(1.4%)
17.1-23.0															0(0%)
23.1-24.0						1									1(1.4%)
기타	1		1			1		2	1	1	1	3	5	5	21(29%)
총계	1	2	2	2	2	2	1	8	7	4	4	12	15	9	72(100%)

표 7. 질적연구 면담 시간

심층면담시간	~59분	60~89분	90~149분	150분 이상	밝히지 않음	전체
빈도	29	7	12	6	18	72
%	40.3	9.7	16.7	8.3	25	100

(3) 연구 참여자 수

질적연구의 연구 참여자 수를 분석한 결과, 6-10명의 범위로 참여한 연구가 27편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1-5명으로 18편, 11-15명이 14편, 16-20명이 7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수가 1명으로 가장 적었던 연구는 이주혜(2019)의 연구로 ‘아프리카 여성 유학생이 경험한 미술치료’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였으며 반대로 연구 참여자가 35명으로 가장 많았던 연구는 포커스 그룹 면담 연구 방법을 활용한 이수정(2011)의 ‘중국인 유학생의 학술적 글쓰기’ 경험에 대한 연구였다.



	1-5명	6-10명	11-15명	16-20명	21-25명	26-30명	31-35명	없음
빈도	18	27	14	7	2	1	1	2

그림 8. 질적 연구 참여자 수

(4) 질적연구 방법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배경, 상황, 유학 동기 등이 다변화하면서 이들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겪게 되는 어려움의 원인도 이전에 비해 훨씬 다양해지고 있다. 그렇기에 외국인 유학생의 경험과 요구를 심도 있게 고찰할 수 있는 다양한 질적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생활 경험에

관해 살피고 적절한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각 논문의 제목과 논문의 연구방법에서 밝히고 있는 질적연구 방법의 빈도수를 5년 단위별로 분석하였고 지금까지 어떤 질적연구 방법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총 72편의 논문 중 가장 많이 쓰인 질적연구의 방법은 ‘기본적 질적연구로’- (주제 분석 7편(9.7%), 비교 분석 5편(6.9%), FGI와 자료 분석 각각 4편(5.6%), 내용분석과 Nvivo 분석 각각 3편(4.2%), 기타 2편(2.8%)- 28편(39%) 이었다. 다음으로는 사례연구 15편(20.8%), 내러티브 10편(13.9%), 근거 이론 9편(12.5%), 현상학 8편(11.1%), 생애사와 합의적 질적연구 방법(CQR)도 각각 1편(1.4%)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사례연구가 2015년 이후부터 질적연구 방법론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현상학 연구도 2016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애사 연구 방법은 2019년에 홍콩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연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표 8. 질적연구 방법별 논문 수(5년 단위 변화)

연구접근		2010년 이전	2011-2015년	2016-2020년	계	%
기본적 질적연구	주제분석	1	3	3	7	9.7
	비교분석	1		4	5	6.9
	FGI		2	2	4	5.6
	자료분석		1	3	4	5.6
	내용분석		2	1	3	4.2
	Nvivo분석		2	1	3	4.2
	기타		1	1	2	2.8
	(총계)	(2)	(11)	(15)	(28)	(39)
사례연구	1	2	12	15	20.8	
내러티브	1	3	6	10	13.9	
근거이론	3	3	3	9	12.5	
현상학		1	7	8	11.1	
생애사			1	1	1.4	
합의적 질적연구(CQR)		1		1	1.4	
총계	7	21	44	72	100	

4) 연구주제

(1) 연구주제 빈도수 순위(전체, 시기별)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논문의 제목과 키워드 빈도수 분석 결과 ‘경험’, ‘적응’, ‘문화’, ‘중국인’, ‘대학생활’, ‘한국어’, ‘학습’, ‘아시아’, ‘교육’, ‘우즈베키스탄’등이 전체적으로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표 9 참조). 그러나 전체적으로 상위 10위 안에 들었던 주요 단어들이 시기별(5년 단위)로는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였다.

가령 2015년 이전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적응’에 대한 연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015년 이후부터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였다. 또한 2010년 이후부터 ‘문화’에 대한 단어도 상위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 이전까지 ‘적응’에 관한 연구가 상위에 등장한 이유로는 정부의 외국인 유치 전략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대학 생활 ‘적응’에 관한 필요가 많았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

표 9. 연구주제 빈도수 순위와 시기별 순위 변화 추이

구분 순위	전체		2010년 이전		2011-2015년		2016-2020년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1	경험	56	적응	9	경험	17	경험	36
2	적응	36	중국인	6	적응	16	문화	18
3	문화	34	대학생활	6	문화	16	학습	12
4	중국인	26	학습	3	중국인	11	한국어	11
5	대학생활	24	근거이론	3	한국어	9	적응	11
6	한국어	22	경험	3	대학생활	8	우즈베키스탄	11
7	학습	17	한국어	2	진로	4	아시아	10
8	아시아	14	초기	2	유학동기	4	대학생활	10
9	교육	13	학업	1	아시아	4	현상학	9
10	우즈베키스탄	11	학교	1	능력	4	중국인	9
11	사회	11	편견	1	학업	3	사회	9
12	현상학	10	재정	1	학생	3	교육	9
13	진로	10	일본	1	학문	3	베트남	7

생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대학 생활의 적응뿐 아니라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한국 문화와 한국생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한 어려움이나 이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려는 연구의 필요성이 반영되어 ‘문화’와 ‘경험’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15년까지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면 2016년부터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유학생에 대한 연구들이 점차로 진행되었다. 이는 2016년을 시작으로 한국 유학 박람회(Study in Korea Fair)가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된 이후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육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면서(교육부 2016) 중앙아시아권 유학생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베트남의 경우는 축구와 한국 드라마 등의 문화 체육 측면과 베트남 내 한국 기업의 진출로 인한 교역 상대국으로서의 관계가 진전이 되면서 한국을 찾는 베트남 유학생들이 많아진 것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박중호 2019).

(2) 시기별 연구주제 변화: 5년 단위

빈도수 분석 결과 상위 10개의 주제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 9>와 같다. ‘경험’에 관한 연구가 2010년 이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연구가 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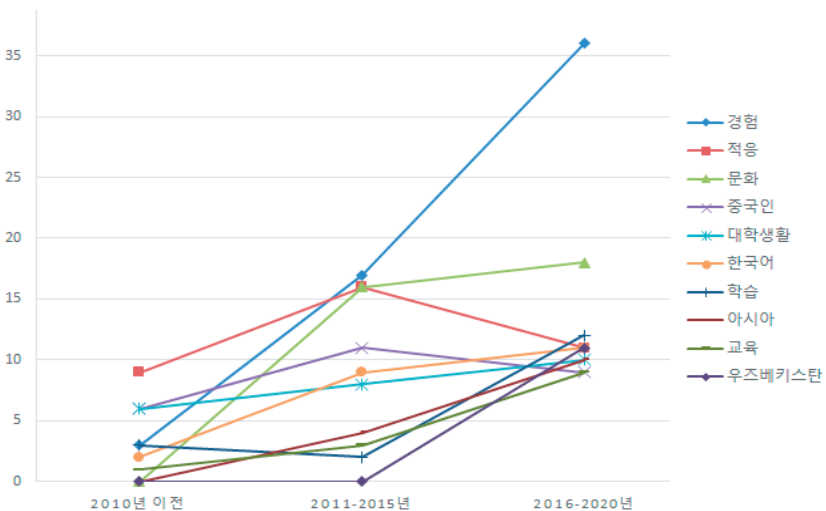


그림 9. 시기별 연구주제 변화

(4) 연결 중심성 시각화

① 전체 시각화

다음 <그림 11>은 중심성을 가진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 주변 단어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시각화 작업을 한 것이다. 도식화된 연결망에서 상징(빨간색 원)은 핵심 키워드를 나타내고 상징의 크기가 클수록 단어의 출현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상징들을 이어주는 연결선은 주요 단어들 간의 연결 정도를 의미하고 이렇게 연결된 단어들이 논문의 연구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연결 중심성이 높을수록 도식화된 연결망 중앙에 위치하게 되고 여러 다양한 연결선을 가지며 연결망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박희정 2017; Chae and Noh 2015). <그림 11>은 연결 중심성을 기준으로 전체 시각화 분석을 한 결과를 토대로 다시 Community 1, Community 2, Community 3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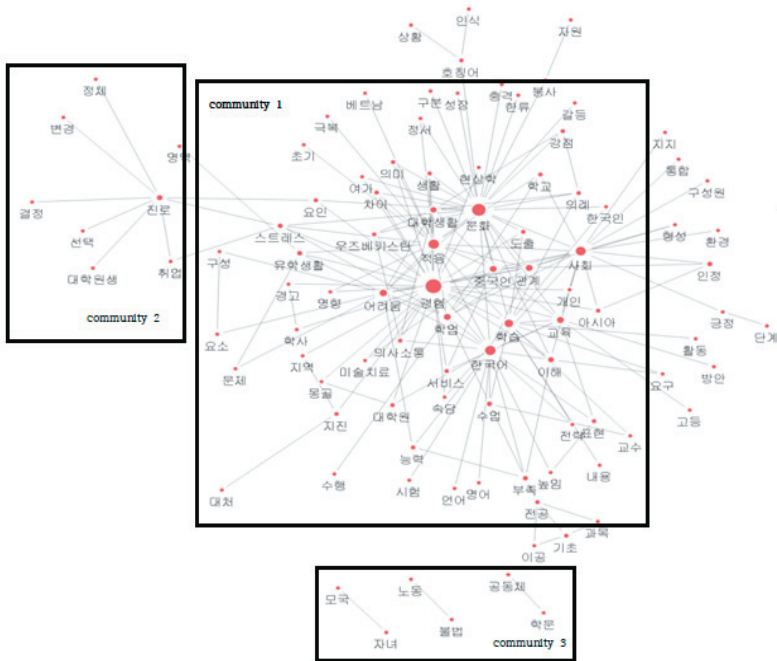


그림 11. 전체 시각화

로 나누었다.

Community 1은 ‘경험’이란 단어가 중심에 위치해 있고 이 단어를 중심으로 ‘문화’, ‘적응’, ‘학업’, ‘한국어’ 등의 주요 단어들이 또 네트워크 중심부에 위치해 다른 여러 단어들과 복잡한 연결망들로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경험에 대한 연구가 ‘경험’이란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화’, ‘적응’, ‘학업’, ‘한국어’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주제들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Community 2는 연결망의 중앙에 벗어나 있고 Community 3은 연결망과 완전히 분리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곧 Community 1에선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연구 주제들임을 알 수 있다.

② Community 1: ‘경험’을 중심으로

Community 1(그림 12 참조)에 나타난 중요 단어 ‘경험’을 중심으로 ‘적응’, ‘문화’, ‘학업’, ‘한국어’ 등과 연결된 연구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응’과 관련된 연구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업 적응’(김대현 외 2007; 김지훈 2013), ‘대학 초기 적응’(권양이 2008; 강현민 외 2014)과 ‘대학 생활 적응’(하정희 2008; 박은미 외 2010)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진행된 연구이다. 또한 ‘미술치료’(이주혜 2019)와 ‘집단미술치료’(이매화 외 2019)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와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둘째, ‘문화’ 경험에 대한 연구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해 나가면서 겪게 되는 ‘문화충격’(민혜경 외 2020)과 ‘스트레스 요인’(이미정 2015), 그리고 ‘한류문화를 통해 어떻게 한국 문화에 적응’(김재은·윤필규 2017)해 나가는데 대한 과정 연구도 있었다. 또한 ‘한국어 사용 능력’(김현진·김영주 2015)과 ‘여가 생활 경험’(오세경 외 2015)에 따른 문화 적응 관련 연구도 진행되었다.

셋째, ‘학업’과 관련된 연구이다. ‘대학 교육에 대한 서비스 경험’(정경희·김영순 2018), ‘학사경고 경험’(성현준 외 2018), ‘학업 중도 탈락 경험’(양징르함 외 2019), ‘학사경고 극복 경험’(이민지 외 2019), ‘좋은 수업에 대한 외국인 학생들의 인식과 경험 분석’(최성호 외 2018) 등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그림 12. Community 1

넷째, ‘한국어’에 대한 연구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겪은 ‘학술적 글쓰기 경험’(주휘정 2010)과 ‘한국어 능력 부족에 따른 대학원 생활 경험’(민진영 2014), ‘유학생이 경험하는 한국어 높임 표현’(박미숙 외 2015), ‘한국 속담 학습 경험’(채은희 외 2018) 등의 연구가 있었다. 이 외에 유학 기간 중 경험한 ‘자원봉사 경험’(김교연 2019)과, ‘지진 경험’(김재환 외 2019) 등의 연구들도 있었다.

③ Community 2, Community 3

Community 2와 Community 3은 기존과는 다른 연구주제들을 보이고 있다. <그림 13>인 Community 2에서는 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연구로 ‘진로결정 요인’(방현희 외 2015)과 ‘진로 정체성 형성 과정’(이준희·유기웅 2018), 그리고 ‘진로 스트레스와 진로탐색 활동’(김미영 2019)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림 14>에 나타난 Community 3 ‘학문-공동체’로서 ‘외국인 유학

생들의 학문공동체가 어떤 요인에 의해 그들의 언어 수행과 학문을 방해 또는 장려하는지를 탐색'(박성원·신동일 2014)했다. '모국-자녀'는 '모국에 자녀를 두고 유학을 온 기혼 여자 유학생에 대한 자녀교육'(박미숙·오영훈 2016)에 관한 연구이고, '노동-불법'은 불법의 영역에 놓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노동자로서 바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유학생 노동에 관한 불법성 연구(바트 쟁게르투맹템벨레·김도혜 2020)를 진행한 논문이다. 이러한 연구 주제들이 진행된 이유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탐색하지 못했던 외국인 유학생들의 진로 정체성과 스트레스, 학문 공동체와의 관계, 불법 노동의 경계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여 유학생들에 대한 내국인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을 위한 보다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기 위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Community 1, 2, 3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생활을 하면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과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원인 그리고 다양한 요구들까지도 다변화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이는 이들에 대한 추가적 연구에 있어서도 질적연구의 중요성과 필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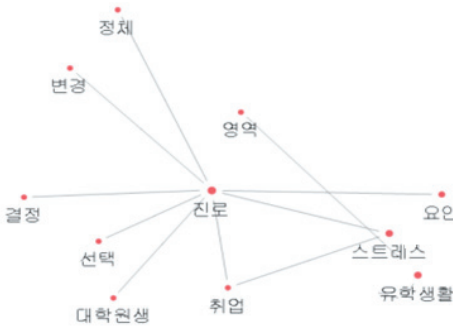


그림 13. Community 2



그림 14. Community 3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한국연구재단의 KCI 등재에 등록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경험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 논문 72편을 가지고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연구의 흐름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연구 논문들의 연도별, 대상별, 연구 방법별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선 MS Excel을 사용하여 통계량을 분석하였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 동향은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빈도 분석, 연결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토대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와 시기별 논문 수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을 시작으로 질적연구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8년에 논문 수가 크게 증가를 했고 시기별로는 2010년 이전을 기준으로 5년 후 3배, 10년 후 6배로 증가했다.

둘째, 연구대상에 대한 분석으로 나라별 결과는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의 아시아권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과정별로는 혼합 22편, 대학생 19편, 대학원생 18편 등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출신 정부 초청 대학원생’(1편), ‘기혼자로서 모국에 자녀를 두고 온 대학원생’(1편), ‘대학원 졸업생’(1편) 등의 특수한 상황에 있는 대학원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구가 별다른 언급 없이 대학과 대학원 과정 중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지역별 연구 대상에 있어선 서울 및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36편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대 유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12편이 있었다. 전공계열별 연구대상 수는 총 698명 중 언급 없음이 3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문·사회계열이 267명, 자연·공학계열 69명, 예체능 26명, 교육 12명, 의학계열 1명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 방법별 분석 결과로는 연구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논문 25편, 면담 시간 60분 미만 논문 29편, 연구 참여자 수 6-10명 범위 논문이 27편으로 가장 많았다. 질적연구 방법으로는 사례연구가 15편(20.8%)으로 가장 많았고 내러티브 9편(12.5%), 근거 이론 8편(12.5%), 현상학 7편(11.1%)으로 나타났다. 생애사

연구와 합리적 질적연구(CQR) 방법을 사용한 논문도 각각 1편씩 있었지만 생애사 연구 방법을 통한 연구는 2019년에 처음 나타났다.

넷째,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 결과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적응’, ‘문화’, ‘학업’, ‘한국어’와 연관된 내용들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험-적응’(학업 적응, 대학 초기 적응, 대학생활 적응, 미술치료를 통한 학교 적응), ‘경험-문화’(문화충격, 스트레스, 한류문화를 통한 문화 적응, 한국어 사용 능력과 여가생활 경험에 따른 문화 적응), ‘경험-학업’(대학 교육 서비스, 학사 경고, 학업 중도 탈락, 학사 경고 극복, 좋은 수업에 대한 인식과 경험 분석), ‘경험-한국어’(학술적 글쓰기, 언어 부족으로 인한 대학생활의 어려움, 높임법 표현, 한국 속담의 학습 경험) 등과 관련된 연구주제들이 있었다.

그 외의 연구들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주제로 ‘진로 결정 요인’과 ‘진로 정체성’ 형성 과정에 대한 탐색적 이해와 유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있어 ‘스트레스의 주원인’과 ‘진로 탐색 활동’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연구들도 있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겪은 ‘학문공동체와의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 앞으로 문화적, 인종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학문공동체가 좀 더 제도, 교육, 사회적 측면에서의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연구와 ‘유학생의 불법노동’이라는 이슈 즉 외국인 유학생들이 미 허가 상태에서 경험하게 되는 노동이 언론과 정부 시각에서 바라보는 일탈적 행위로만 규정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음을 밝히는 연구도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기간은 약 13년 정도로 연구의 역사가 짧을 뿐 아니라 누적된 연구 수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해영·박수정(2018)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동향 분석(2007-2016년) 결과 유학생의 ‘적응’(64%)이 연구 주제로 집중되어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2017년 이후부터는 ‘적응’뿐 아니라 유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에 관한 연구들이 연구 주제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필요가 ‘적응’뿐만 아니라 한국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다양한 현상들을 통해 보다 다각적인 차원에서 유학생들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필요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질적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활발한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 대상들이 국가와 지역별로는 좀 더 다양하고 학업 과정별, 전공 계열에 있어선 좀 더 세부화된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국가별 연구 대상은 특정 국가에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프리카, 중동, 유럽, 북미, 남미 등의 출신 국가 유학생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 대학 뿐 아니라 여러 지방대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별히 201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우수 지방 대학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방안 정책’-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 및 정부 초청 장학생(GKS) - (교육부 2015)을 고려해 본다면 지방대 유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연구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정별로는 전문 학사와 언어교육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뤄져야 하며 한국어 수준별, 성별, 결혼, 자녀·임신 유무 등의 특별한 상황에 놓인 연구 대상자들에 대한 연구들도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의 유학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연구들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한국어 사용 경험, 대학생활, 문화, 학업의 적응에 관한 경험 연구들이 많았다. 그러나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를 통해 각 대학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여 고등교육 분야의 국제화 촉진과 고등교육 서비스 개선을 통한 유학수지 개선 등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적 평가를 위해 ‘장학금 혜택 경험’과 ‘복지 시설 경험’, ‘의료보험 문제’, ‘취업 연계 서비스 경험’, ‘졸업 후 국적 취득’, ‘교육 서비스와 기숙사 시설 등을 통한 유학 생활의 만족도’등과 같이 정부의 유학 정책과 관련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실제 경험을 연구해 보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학업 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내국인 대학생들과 교수들에 대한 연구도 더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들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질 때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다각적 이해가 가능해지고 이를 근거로 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유학 정책도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신: 김영순(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교수)(kimysoon@inha.ac.kr)

Correspondence: Young Soon Kim(Professor, Multicultural Education, Inha University)(kimysoon@inha.ac.kr)

2021.01.15 접수, 2021.01.19 심사, 2021.02.10 게재확정

참고문헌

- 강운신, 2016,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한국 대학생의 인식 유형, *현대사회와 다문화*, 6(2), 75-93.
- 강현민 외, 2014, 일반논문: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 초기 적응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0(4), 215-240.
- 교육부, 2004, Study Korea Project 추진계획 수립.
- 교육부, 2008, 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
- 교육부, 2012, 제12차 교육개혁협의회 Study Korea 2020 Project 추진계획.
- 교육부, 2015,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 발표.
- 교육부, 2016,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시행 공고.
- 교육부, 2016,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한국유학박람회' 개최(StudyinKorea Fair).
- 교육부, 2019,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시행 공고.
- 교육통계서비스, 2020,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 권경인·양정연, 2013, 상담학 분야의 질적연구 동향분석(2000년-2012년), *상담학 연구*, 14(6), 3871-3893.
- 권양이, 2008,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대학 초기 적응에 관한 질적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14(1), 301-333.
- 김갑선, 2017,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의 질적연구 동향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 48(1), 373-396.
- 김교연, 2019,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자원봉사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S 대학교의 학부 유학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5(2), 1-29.
- 김대현 외, 2007,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의 학업적응 경험에 대한 근거 이론적 연구, *아시아 교육연구*, 8(3), 159-187.
- 김미영·이유아, 2019, 베트남 유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탐색활동에 관한 질적 연구, *동아연구*, 76, 41-72.
- 김봉환 외, 2012, 상담분야의 질적연구 동향 분석(2002년-2011년),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1), 729-752.

- 김성은·이교일, 2019, 한국정부 유학생 교육정책의 계보와 과제, *교육문화연구*, 25(5), 61-78.
- 김영경, 2009, 학교상담: 중국,일본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할 적응을 위한 요구 분석, *상담학연구*, 10(1), 535-559.
- 김영천, 2016, *질적연구방법론 1*, 아카데미프레스.
- 김재은·윤필규, 2017, 한류문화를 통한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과정: 한국춤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3), 611-630.
- 김재환 외, 2019, 외국인 유학생의 지진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포항지역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0(6), 227-245.
- 김지훈, 2013, 연구논문: 서울 A대학 동남아시아 유학생의 학업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23(3), 135-179.
- 김진희 외, 2015, *질적연구 여행*, 북코리아.
- 김향란 외, 2017, 진로 분야의 질적연구 동향분석: 2000년~2016년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0(3), 173-191.
- 김현미, 2020, 글로벌 노동 유연화와 유학생-노동자의 사례:수도권 물류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월간 노동리뷰 4월호*, 63-78.
- 김현진·김영주, 2015, 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문화적응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어 사용능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1(4), 201-225.
- 김희정·조성희, 2018, 외국인 유학생과 새터민 대학생의 학습력 향상을 위한 학습코칭프로그램 설계 및 효과, *현대사회와 다문화*, 8(2), 119-149.
- 대학알리미, <https://www.academyinfo.go.kr>.
- 민진영, 2014,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부족에 따른 대학원 생활 경험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7(2), 159-181.
- 민혜경·이영희, 2020, 국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문화충격 요인에 대한 질적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76, 321-350.
- 바트첵게르투맹템벨레·김도혜, 2020, 유학생 노동의 불법성 연구: 한국 지방대학의 몽골과 베트남 유학생의 노동경험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0(2), 25-52.
- 박경애·백지은, 2017, 상담심리학 연구 동향: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2012~2016) 분석 및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게재논문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4), 893-913.
- 박미숙·갈라노바닐도자, 2016, 모국에 자녀를 둔 기혼 여자유학생의 자녀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6(10), 121-129.
- 박미숙·오영훈, 2015, 외국인 유학생이 인식하는 한국어 호칭과 문화와의 상관성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4(2), 75-91.
- 박성원·신동일, 2014, 외국인 유학생의 학문공동체 참여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7(1), 103-158.

- 박승민, 2012, 상담학 분야의 질적연구 경향 분석-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2), 953-977.
- 박은미 외, 2010,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8(2), 205-223.
- 박종호, 2019, 베트남 유학생들의 행복한 대학생활 적응 방안: 생활·경제, 복지 환경, 대학 전공 교육, 언어 연수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논문지, 13(8), 495-504.
- 박희정, 2017,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언어치료연구 학술지 게재논문 연구동향 분석: 1998-2015, 언어치료연구, 26(1), 131-143.
- 방현희 외, 2015, 일반논문: 한국 대학원 유학생들의 진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1(4), 309-334.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2020,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index.do>.
- 성현준 외, 2018,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사경고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1), 1343-1370.
- 신동훈·김세현, 2020,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연구 동향 분석: 시·기별 연구주제 변화 탐색, 교육학연구, 58(1), 333-361.
- 신명선 외, 2020,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 소통.
- 양징르함·김사훈, 2019, 재한 몽골 유학생의 중도 탈락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예술 인문사회 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5), 21-236.
- 오세경 외, 2015,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을 위한 여가 경험의 의미, 여가학연구, 13(4), 79-99.
- 유기웅 외, 2018,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사.
- 이매화·한경아, 2019,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자기이해를 위한 집단미술치료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미술치료연구, 26(5), 967-990.
- 이미정 외, 2015, 일반논문: 중앙아 시아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 연구, 교육문화연구, 21(5), 283-307.
- 이민경, 2012,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학동기: A대학 아시아 유학생들의 한국 유학 선택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18(2), 177-201.
- 이민지 외, 2019,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의 학사경고 극복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교육문화연구, 25(5), 1027-1051.
- 이수상, 2014, 언어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의 내용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1(4), 49-68.
- 이수정, 2011, 중국인 유학생의 학술적 글쓰기 경험에 대한 FGI연구, 인문연구, 63, 91-120.
- 이은화, 2015, 한·중 양국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의 발전과 주요 제도 비교 연구, 중국학, 53,

- 161-184.
- 이주혜, 2019, 외국 여성유학생의 미술치료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인문사회* 21, 10(2), 1223-1238.
- 이준희·유기웅, 2018, 한국 대학으로 유학을 온 아시아 유학생의 진로정체성 형성 과정 탐색, *인문사회* 21, 9(5), 543-557.
- 이현진·김명찬, 2018, 상담학 질적연구 동향분석(2012-2017년): 상담 관련 국내 학술지 및 jcp 게재논문 비교 중심으로, *상담학 연구*, 19(3), 73-96.
- 이혜영·박수정, 2018,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글로벌교육연구*, 10(4), 119-145.
- 이혜준 외, 2010,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프랜차이즈 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영교육연구*, 14(2), 105-128.
- 정경희·김영순, 2018,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교육 서비스 경험에 관한 연구: 수도권 지역의 A대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4(3), 547-565.
- 정유리, 2018,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 및 일상생활 어려움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다문화*, 8(2), 150-185.
- 주희정, 2010,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대학 학습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교육문제연구*, 36, 135-159.
- 채은희 외, 2018,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속담' 학습 경험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 561-584.
- 최성호 외, 2018, 좋은 수업에 대한 외국인학생들의 인식과 경험 분석:중 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36(2), 91-118.
- 하정희, 2008,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 치료*, 20(2), 473-496.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http://www.riss.kr/index.do>.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 ZHAI LIXIA 외, 2018, 한국어 실력이 왕초보인 박사과정 유학생의 학업적응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6(3), 157-175.
- Chae, H. I., and Noh, S. G., 2015, The research trends in core competency education in finland: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analysis of elementary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 Instruction*, 19(3), 645-667.
- Creswell, J. W., 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different appracher* (3rd.ed). Thousand Oaks, CA: Sage.
-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inquiry in practice*. San Francisco: Jossey-Bass.
- Creswell, J. W., 2013, *질적연구방법론-다섯가지 접근*, 조흥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공역, 2016, 학지사.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Trends on the Life Experience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n

Seon Mi Lee* · Young Soon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policy development along with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on international students experience in Korea. In response, 72 qualitative research papers registered with KCI were extracted to analyze research trends. As a result, the number of papers has increased since 2018, and major research subjects include Asian, academic, Seoul and metropolitan universities, and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majors. The research period was less than three months, interview time was less than 60 minutes, and the range of 6-10 research participants was the average value, and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a lot of case studies. Research topics include experience, adaptation, culture, career, illegal labo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first attempted to analyze the trend of qualitative research on the experience of international students living in Korea, and provided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qualitative research on them.

Keywords International Students, Korean Life Experience, Qualitative Research, Language Network, Trends Analysis of Research

* First-Author, Inha University, Korean Language Education, Ph.D. Candidate, sos0106@nate.com

** Corresponding Author, Inha University, Multicultural Education, Professor, kimysoon@inha.ac.kr